

진안에서 하나되는 '영·호남' 웃음꽃

비르게살기운동 국민화합전진대회
2000여명 회원 참가 '교류 활성화'

전북도와 경상북도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우호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영·호남의 국민화합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제19회 국민화합전진대회'가 4일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가 주최하고 진안군의회(회장 최경호)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경상북도 윤종진 행정부지사, 바르게살기운동 혼종철 전북협의회장, 이종평 경북협의회장, 이항로 진안군수, 신갑수 군의장, 이한기 도의원, 비롯해 양도 임원과 37개 시·군을 대표한 2,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전북과 경북 간 운동을 올해 행사는 '배려와 존중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양도 참석자들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행복한 사회실현에 기여할 것과 영·호남 소통으로 국민화합실현, 이웃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 바른생활실천으로 밝은 사회 실현을 다짐하는 4개 결의문을 채택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전북과 경북의 도화인 백일홍 기념식수, 유공자표창, 대회경과보고, 내빈 격려사, 영·호남 화합 한미당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

고 당부했다.

이항로 군수는 환영사에서 "진안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모처럼 진안을 방문하신 만큼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기원한다"며 "진안군도 진정한 화합과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조준열 의원, 전북 효도 가족 100쌍에 선정

진안군의회 조준열 의원(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사진)이 지난 3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효도 가족 100쌍'에 선정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효문화지원본부(대표 신석산)가 주최하고 전북노인복지재단·지역문화연구원(총재 소순갑)이 주관한 전라북도 효도 가족 100쌍은 전북도내에서 효도 가족을 추천받아 현장설사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효도 가족 100쌍에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김승수 전시장 등 전북 지역 명사 100분이 참여한 가운데 1대 1로 상패를 수여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로 꾸며졌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진안군의회 조준열 의원 가족은 5남 3녀 8남매의 대가족으로 유달리 형제간 우애가 돋보여 주변의 칭찬이 자자했다. 부모님은 1996년에 원양부부에 선정됐고, 2016년에는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이달의 칭찬 공무원 4명 격려·기념품 전달

남원시 이화주 시장은 4일 오전 시장실에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칭찬글을 받은 친절직원 4명을 격려하고, '비율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막 그릇'이라는 도서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이번 '칭찬합니다' 게시글 일부를 살펴보면 "누구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고 어쩌면 사회에서 소외되는 환자들에게 가족처럼 신경써주시고, 진실된 관계를 맺어가며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진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사연이 담겼다.

칭찬사연의 주인공은 보건소 건강생활과 강회동 주무관이며, 이밖에도 민원과 박에서, 죄운실, 주민복지과 소선자 주무관은 각각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인상을 안겨 주어 시의 상호존중 문화와 칭찬하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남원시에서는 시청 홈페이지의 '소통과 참여·칭찬합니다' 코너를 이용해 칭찬에 인색한 현대사회에서 상호존중과 이롭다운 미덕의 소개와 칭찬하는 분위기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만들기 위한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기 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주)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문대로 222 4층 (서노승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5-4113	증인지사 010-988-8874	남원지사 020-3398	고창지사 563-6999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신천지사	255-204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06	
010-2333-4791	253-8844	남원지사 020-3395	정읍지사 538-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62-6157	
호지지사 010-8045-9886	의성지사 888-920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체육대회 전북대표 순창군선수단 발대식

순창군이 지난 2일 전북도를 대표해서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대표선수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익산시가 주최해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도내 14개 시군에서 열린다.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단은 정구 남자일반부 군청팀 6명, 여자일반부 6명, 남자 고등부 7명, 여자 고등부 7명(제일고), 여도 남자 고등부 2명(순창고) 등 2개 종목에 코치 등 31명이 도 대표로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발대식에 참석한 홍숙주 순창군수는 "전라북도를 대표해 참가하는 만큼 그동안 힘들게 훈련해 온 선수단 여러분의 실력을 100% 발휘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부안 제40회 줄포면민의 날 행사 성료

부안군 줄포면(면장 이춘호) 제 40회 줄포면민의 날 축제가 지난 3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국회 김종희 의원, 이한수 군의장, 면민, 출향인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줄포면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쇠전행사로 줄포면 주민자치에서 풍물과, 난타 그리고 백합 노인대학에서 생활체조를 시작으로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투호 등 체육 경기 통해 면민들의 유대감을 다지고, 가마솥 밥짓기, 흘태, 네일아트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유창선 줄포면 체육회장은 "우리 고장 줄포에서 면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제40회 줄포면민의 날축제가 면민의 화합해 줄포면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선운산농협, 농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사) 우리농업지끼기운동본부, NH농협 전북지역본부는 4일 베트남에 친정을 둔 다문화가정 1가정을 선정해 4인 가족 동반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열었다.



선운산농협 웨크자지점에서 실시된 전달식에는 NH농협 전북지역본부 박병철 노조위원장, NH농협 오양환조합장 등이 참석해 금차 도국을 방문하게 되는 베트남 뚜엔씨 (26)에게 항공권과 12박 13일 일정의 체재비, 전국제품 등을 전달하고 오찬과 함께 친정 방문길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행사의 재원은 우리농업지끼기운동본부 (대표 우진하)가 주관하고 NH농협 러브트리 카드 공익기금과 NH농협은행 하노이사무소의 후원을 통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20가정 80명에게 모국방문의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 NH농협은행 하노이지점에서는 현지에서 1박2일간의 문화체험 행사를 지원해 자녀들에게 엄마의 나라를 알아보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계획이다.

NH농협 러브트리카드'는 카드를 사용시 적립되는 러브포인트를 카드 가입자로부터 기부 받아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농촌 소외계층 지원, 소아암 어린이 수술지원, 아프리카 빙관이동 식수개발 및 생계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기부특화카드 상품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